



첼리스트 진채리(왼쪽)와 피아니스트 조연미씨.



아쟁 연주자 서영호.

목요일에 만나요, 풍성한 가을 무대

‘목요일에 만나요.’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목요 상설 무대와 광주 시 서구 빛고을국악전수관이 기획한 목요국악상설 공연은 다양한 레퍼토리로 관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한여름 잠시 휴식기를 가졌던 목요 공연들이 다시 개를 켜다.
지난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목요상설무대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공연장 무료 대관,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해 공모를 통해 클래식, 국악, 대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선정, 무대에 올린다.
가을 무대를 장식하는 첫번째 주자는 첼리스트 진채리씨다. 3일 오후 7시30분 ‘가을에 흐르는 낭만’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연주 레퍼토리는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b플랫 단조 작품 35 장송행진곡’,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 1번 G장조’,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작품 6’ 등이다.
목포대와 빈 시립음악원에서 수학 후 목포시립교향악단 차석 단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시향, 형가리 심포니 등과 협연했다. 현재 목포대, 광주여대 등에 출강중이다. 피아노 반주는 조연미씨다.
하반기에 예정된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광주문화재단 목요 상설무대

3일 첼리스트 진채리 공연

하반기 클래식·대중음악 무대

빛고을전수관 목요 국악공연

첫 주자 서영호씨 아쟁 연주

판소리·전통무용·해금 뒤이어

▲박의혁 피아노 독주회 ‘희상’(9월10일) ▲SR 재즈 밴드 ‘컨템포러리 재즈 콘서트’(9월17일) ▲문중아 바이올린 독주회 ‘덴싱 위드 더 바이올린’(9월24일) ▲박명숙 피아노 독주회 ‘클로드 드뷔시의 음악세계’(10월1일) ▲빅뱅 싱어즈 ‘우리들은 미남이다’(10월 8일) ▲김연우 가야금 병창 ‘춘향가’(10월 15일) ▲감머무지칸트와 함께하는 ‘슈베르트 가곡의 밤 3’(10월22일) ▲재즈 이노베이션 ‘사랑으로 감성을 울리는 재즈 감상회’(10월 29일) ▲클라비 클라리넷 퀸텟의 ‘감성여행’(11월5일). 티켓 가격 일반 1

만원, 학생 5000원. 문의 062-670-7945.
목요일국악한마당은 지금까지 461회를 진행한 장수 프로그램이다. 기악, 무용, 판소리 등 다양한 국악 장르를 선보이고 있으며 정통 국악과 퓨전 장르, 중견 국악인과 신진 음악가들을 아우르는 기획이다.
3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에서 열리는 하반기 첫 공연은 아쟁 주자 서영호씨의 ‘현의 노래’다. 서 씨는 이번 공연에서 아쟁과 함께 거문고와 기타를 합친 개량 악기 철현금을 연주한다. 철현금은 명주실로 제작한 기존의 전통 현악기와 달리 철현을 사용해 이국적이면서 독특한 음색을 낸다.
연주 레퍼토리는 철현금 제작자인 고(故) 김영철의 가락으로 듣는 ‘철현금 산조 협주곡’, 남도 민요로 유명한 ‘육자배기’, 아쟁과 박유빈의 거문고와 함께 하는 ‘한갑득류 거문고 아쟁 병주’ 등이다.
또 가야금병창 명인 신정옥씨가 찬조 출연, ‘적벽가’ 중 ‘조자룡 활 쏘는 대목’을 들려준다. 마지막 무대는 삼풀이춤과 아쟁이 함께한다.
9월 한달간 ▲박춘맹 판소리 연구소 초청 판소리 공연(10일) ▲홍송화 초청 전통무용공연(17일) ▲김현정 한인선 초청 연주회 해금과 가야금 2중주(24일) 공연이 열린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기원과 역사

고향 떠난 문화인들이 들려주는 추석과 귀향 이야기

우리 민족에게 아리랑은 ‘밥’과 같은 노래다. 단일 노래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버전을 지닌 노래이기도 하다. 예향 9월호는 특집으로 ‘민족의 노래 아리랑’을 집중 조망했다. 오랜 세월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고 창작, 전수되었던 탓에 아리랑은 민족의 노래를 넘어 문화의 표상으로 인식된다. 광복 70돌을 맞아 민족의 노래 아리랑의 역사적, 문화적, 어원적 측면 등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기획으로는 곧 다가올 추석을 맞아 우리 시대 문화인들의 추석과 귀향이야기를 담았다. 이맘때면 고향을 떠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정을 생각하고 옛시절을 돌아보곤 한다. 고향을 떠나 있는 문화인들이 풀어놓는 ‘귀향에 얽힌 추석 이야기’는 잔잔한 감동을 줄 것이다.

또 다른 기획 ‘사람이 브랜드다’에서는 대하소설 ‘혼불’의 작가 최명희의 삶과 문학을 들여다보았다. 작가는 “근원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혼불’을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전주 한복마을에 자리한 최명희 문학관에는 작가의 고향과 모국어에 대한 사랑이 오롯이 깃들어 있다.
‘예향 초대석’은 미술이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창작에 매진하고 있는 임옥상 화가를 만났다. 미디어아트, 팝아트 등 미술의 스펙트럼이 다양해지면서 정작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미술의 본령은 흐려지고 있는 이때, 미술로 시대를 해석하는 화가를 만나 그의 고견을 들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음식장 이에설

광주일보 문화예술전문매거진

예향 9월호



씨를 만나 기다림과 정성의 미학을 들었다. 종갓집으로 시집을 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상을 차리며 중부의 길을 걸어왔던 그녀가 들려주는 전통 음식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도시 재생 국내의 현장을 가다’에서는 역사와 추억으로 사랑받는 소평단지, 보스턴 퀸시마켓을 소개하고 ‘新남도문화여지도’는 ‘文不如 長城’을 찾아 유서 깊은 역사와 문화, 맛의 세계를 들려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문화교류재단 호남기록문화유산 시민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책 펴내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시민강좌를 책으로 묶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책이 나왔다.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장 백수인)과 전남대 호남한문고 전연구실(책임교수 김대현)이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기획한 주제 강좌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에서 발표한 강연을 엮은 것이다. 이 시대를 대표하는 저서 열 명이 고대사부터 근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문화, 철학의 지혜를 통한 인문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강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이태호(명지대 미술사학과 교수), 이이화(서원대 석좌교수), 이종범(조선대 역사문화학과 교수), 김세곤(호남역사연구원장), 신익철(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이강래(전남대 문화재문대학원장), 이해준(충남역사문화원장), 서중석(성균관대 명예교수), 조현종(국립광주박물관장), 김대현(전남대 호남한문고전연구실 책임교수) 등 10명의 강좌 내용을 만날 수 있다.
한편 올 시민강좌는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8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용희 kimyh@



프랑스 음악 기행

광주시립교향악단 연주회...4일 광주문예회관

광주시립교향악단이 ‘프랑스 기행’을 주제로 연주회를 갖는다. 라벨과 생상 등 프랑스 대표 작곡가들의 음악을 만나는 공연이다. 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상임지휘자 이현세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의 첫 곡은 토마의 ‘레이몬드 서곡’이다. 이어 ‘접자는 숲속의 미녀의 파반느’, ‘엄지 동자’, ‘파고다의 여왕 레도르네트’ ‘미녀와 야수의 대화’, ‘요정의 정원’으로 구성된 라벨의 ‘어미거위 모음곡’과 ‘다프니스와 클로에 조곡 2번’이 연주된다.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의 협연무대로 기대된다. 피바

디 음대와 줄리어드 음대에서 수학한 이씨는 지난 1991년 한국인 최초로 워싱턴 국제 콩쿠르에서 1위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고 쾰 렌리자베스 콩쿠르,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에서 수상했다.
현재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내셔널 비르투오지, 화음챔버 리더로 활동중이다. 연주곡은 생상의 ‘서주와 룬도 카프리치오소 작품 28’과 라벨의 ‘차간느’다. 티켓 가격 3만원~1만원.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바이올리니스트 이경선

www.doidam.net

펜션매각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아름다운 펜션(성업중)

광주공인중개사
임아 상가 전문 **정주경 010-6460-2834**

건평 1093㎡(330평) 대지(잡종지) 17680㎡(5350평)

1 문평 IC에서 5분거리

2 2차선 도로변 남향 접근성 양호

3 연수원, 기도원, 요양원, 요양병원등 적합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130-증-2696호

50년 전통, 대를 잇는

한의원 북경당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 코피 해결
건강한 다이어트 한방 비만 클리닉

한의학박사
박 상 준 원장
전문원, 전 동산대교수

진료시간

평 일 : 오전 9시 ~ 오후 7시
토요일 : 오전 9시 ~ 오후 4시
일요일휴진, 공휴일은 오전진료

KT ● 중일초교 ● 금남로 ●

← 개림동 →

한화생명 ● 주한대 병원 ● 고려치과 ●

구.한미소방서 ● 동부소방서 ●

북경당 한의원

진료문의 **(062) 227-7575**